발행처/(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미래관 807호, 808호 교육연구소
E-mail/ ier@kangwon.ac.kr **발행인**/박주병 주임교수 **주간**/신철균 교수 **부주간**/박찬수(박사과정), 최강현(석사과정)

Vol.16
2023년 12월29일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지역&교육협력

SINCE 2020 DEPARTMENT OF REGIONAL EDUCATION COOPERATION

http://keri.kangwon.ac.kr/

KNU 강원대학교

Contents

Vol . 16

교수 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

/ 윤홍주(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지역교육협력학과 강사)

졸업생 기고

대학원 파견, 그리고 그 후

/ 최묘경(강원대학교 지역교육협력학과 1기/홍천중학교 교사)

편집위원 기고

학교에서 교육뮤지컬 한 번 해보기

/ 박찬수(강원대학교 지역교육협력학과 박사과정/샘마루초등학교 교사)

재학생 기고

지역교육협력학과 대학원생으로 1년차를 마치며

/ 이은철(강원대학교 지역교육협력학과 석사과정/원주교육문화관 교육행정 6급)

지역교육협력학과 소식

교육연구소 GLOKAL Festival 참여

2023 대학도시 춘천 포럼

2023학년도 하반기 지역교육협력학과 석사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심사

2023학년도 하반기 지역교육협력학과 전공 집중캠프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지역교육협력학과
SINCE 2020 DEPARTMENT OF REGIONAL EDUCATION COOPERATION

교수 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1)]

윤홍주(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지역교육협력학과 강사)

2017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할수 있게 되었다. 안정화기금 제도의 도입에 따라 2019년부터 시·도교육청에서는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하였다. 기금은 예산의 예외적 운영으로, 설치목적,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확정절차, 집행, 수입과 지출의 연계, 계획변경 등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구별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과 기금의 비교

구분	예산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치목적	- 자치단체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사업 운영 - 자금보유 운용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 조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 제공이 원칙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융자사업 등 유상급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확정절차	- 사업부서 예산요구 - 예산부서 예산안편성 - 지방의회 심의·의결	좌동	-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 예산부서 협의·조정 - 지방의회 심의·의결
집행절차	-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 - 예산외 목적 외 사용 금지원칙	좌동	-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
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좌동
계획변경	- 추경예산편성	좌동	- 정책사업비의 10분의2 초과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
결산	- 지방의회 심의·승인	좌동	좌동

출처: 송기창 외(2021), p.104

1) 이 글은 '시·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현황과 과제'(2023년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2권 제4호 게재예정)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사업성기금, 금융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으로 구분하기도 하며(김용욱, 2021: 120-121), 지방기금은 사업관리기금, 융자성기금, 적립성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박혜림, 2022: 82). 사업관리기금은 특정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용하는기금이며, 융자성기금은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한 부문에 융자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이다. 사회보험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 연금급여 및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연금성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과 같이 보험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성기금이 있으며, 국가기금으로만 운용되고 있다.

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안정적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운용하는기금이다(행정안전부. 2016). 경제여건에 따라 세입이 대폭 증가하는 해도 있고, 반대로 감소하는 해도 있게 마련이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세입상황에 따라 세출을 늘리거나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세입이 크게 늘면 불요불급한 지출을 만들어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기 쉽고, 세입이 줄더라도 경직성 경비까지 줄이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안정화기금과 같은 연도 간 재원조정 제도가 필요하다(남황우 외, 2016).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모두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중앙정부는 청소년육성기금 등 사업성기금 49개, 공무원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9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계정성기금 5개,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성기금 8개 등 총 68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있다(한국재정정보원, 2022).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기금 운용 현황은 <표 2>와 같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수는 총 2,431개이며, 기금조성액은 56조 3,500억원이다. 교육청은 총 5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21조 3,796억원이다. 예산 대비 기금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는 16.0%, 교육청은 19.9%로 예산 대비 비율은 교육청이 다소 높았다. 예산 대비 기금조성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소 10.5%(부산광역시)에서 최대 33.4%(세종특별자치시)였으며, 교육청의 경우 최소 12.1%(경기교육청)에서 최대 39.8%(세종교육청)이다.

<표 2> 2022년 최종 예산 대비 기금 규모

(단위: 억원, %)

시도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순계예산 (A)	기금수 (B)	조성액 (C)	비율 (C/A%)	예산 (D)	기금수 (E)	조성액 (F)	비율 (F/D%)
서울	544,097	365	78,821	14.5	146,333	6	18,003	12.3
부산	187,722	134	19,623	10.5	61,551	4	16,449	26.7
대구	125,822	54	21,218	16.9	49,231	2	11,906	24.2
인천	171,286	92	19,379	11.3	60,601	2	12,801	21.1
광주	84,029	56	10,445	12.4	32,728	3	6,493	19.8
대전	79,996	67	14,020	17.5	31,853	2	7,511	23.6
울산	62,523	45	11,577	18.5	25,502	2	4,552	17.8
세종	18,996	14	6,350	33.4	12,502	2	4,980	39.8
경기	677,391	375	135,390	20.0	242,062	4	29,263	12.1
강원	180,696	182	35,451	19.6	46,041	4	15,714	34.1
충북	146,454	116	28,828	19.7	42,124	3	12,649	30.0
충남	197,338	164	28,685	14.5	55,191	2	10,713	19.4
전북	184,488	162	22,391	12.1	49,308	3	13,509	27.4
전남	233,305	196	34,877	14.9	56,092	5	13,079	23.3
경북	286,450	212	51,327	17.9	66,946	4	14,427	21.5
경남	260,933	172	29,052	11.1	77,313	3	17,864	23.1
제주	74,425	25	16,066	21.6	17,096	3	3,884	22.7
합계	3,515,951	2,431	563,500	16.0	1,072,474	54	213,796	19.9

출처: 1.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 '23.9.27.인출
2. 행정안전부(2023).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pp.260-262.

시·도교육청의연도별 안정화기금 규모는 <표 3>과 같다. 연도말 적립액을 살펴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13개 교육청의 적립액은 2조 3,056억원, 2021년 말은 14개 교육청의 적립액은 3조 121억원, 2022년 말에는 17개 교육청의 적립액이 11조 5,845억원이다.

안정화기금의 적립요건은 세입증가, 순세계잉여금,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요건으로 구분된다. 세입증가의 경우 대부분 최근 3년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정화기금의 사용요건으로는 크게 세입감소, 지방채 상환, 대규모 재난 및 재해,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모든 교육청에서 공통으로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교육청에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경우', '학생배치시설사업, 학교일반시설사업, 교육정책사업, 학생복지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설개선사업, 교육정책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등 시설사업이나 정책사업에도 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다.

<표 3> 연도별 안정화기금 규모

(단위: 백만원, %)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세입결산 (A)	연도말 적립액 (B)	비율 (B/A%)	세입결산 (C)	연도말 적립액 (D)	비율 (D/C%)	세입결산 (E)	연도말 적립액 (F)	비율 (F/E%)
서울	11,281,084	-	-	12,202,397	-	-	14,738,178	465,100	3.2
부산	4,908,749	469,749	9.6	5,055,863	244,175	4.8	6,410,985	918,889	14.3
대구	3,824,011	-	-	4,069,669	85,000	2.1	5,007,451	490,337	9.8
인천	4,610,747	166,975	3.6	4,971,876	355,109	7.1	5,831,678	825,649	14.2
광주	2,453,474	24,803	1.0	2,739,347	45,683	1.7	3,423,047	446,059	13.0
대전	2,385,119	92,362	3.9	2,508,710	90,457	3.6	3,195,921	548,248	17.2
울산	2,013,669	75,009	3.7	2,058,057	37,955	1.8	2,576,164	153,395	6.0
세종	924,008	182,033	19.7	1,018,815	185,584	18.2	1,285,705	447,626	34.8
경기	18,395,628	148,356	0.8	19,839,121	167,656	0.8	25,132,643	1,758,389	7.0
강원	3,349,922	311,812	9.3	3,626,283	519,337	14.3	4,637,456	1,030,659	22.2
충북	3,028,602	193,943	6.4	3,209,182	260,577	8.1	4,188,358	842,901	20.1
충남	4,053,485	64,165	1.6	4,413,060	206,960	4.7	5,651,377	998,726	17.7
전북	3,844,568	120,257	3.1	4,107,589	187,562	4.6	5,115,587	790,163	15.4
전남	4,316,644	-	-	4,451,209	-	-	5,743,101	422,800	7.4
경북	5,201,809	320,170	6.2	5,445,865	208,842	3.8	6,718,303	337,118	5.0
경남	6,222,193	136,000	2.2	6,284,151	417,212	6.6	7,804,212	1,063,420	13.6
제주	1,394,980	-	-	1,396,118	-	-	1,792,232	45,000	2.5
합계	82,208,692	2,305,634	2.8	87,397,312	3,012,109	3.4	109,252,398	11,584,479	10.6

주: 세입결산액은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출처: 각 시·도교육청(2023).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참고문헌

김용욱(2021). 현행 예산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예산의 실무상 운영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49, 113-139.

남황우, 이현우, 이희재(2016).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박혜림(2022). 지방기금운용 평가에 대한 적절성 분석: 국가기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7(3), 79-107.

송기창, 하봉운, 윤홍주, 오범호, 김지연(2021). 『지방교육재정 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 연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연구 보고서.

한국재정정보원(2022). 『2022 회계·기금운용 구조』.

행정안전부(2016).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계획.

행정안전부(2023).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대학원 파견, 그리고 그 후

최묘경(지역교육협력학과 1기/홍천중학교 교사)

☺ 파견, 그 시작

교직에 임용된 지도 십 년. 한 교과 수업을 꾸준히 진행하다 보니, '새로움'과 '쉼'에 대한 갈망이 커졌다. 꾸준하게 십 년 동안 하나의 일을 지속해 온 자신에게 보상을 해 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국어 교과 하나만 파 왔으니 새로운 시도를 해 볼 때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강렬하게 드는 시기였다. 그간 발전 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있었다.

생각해 보면 나는 꾸준히 새로운 것을 해 보고 싶은 사람이었다. 굳이 듣지 않아도 될 자율 연수를 찾아서 들어 보고, 부전공도 이수하고, 실현 가능성은 없어도 온갖 대학원이나 재외기관 파견 안내 같은 것도 마치 '곧 갈 사람처럼' 매년 들여다보는 사람이었다. 부전공까지 이수하고 나니, 이제 겁나서 못해봤던 것은 '파견'이 남은 상태였다. 애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거나 훌륭한 연구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기질과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호기심에 겁 없이 대학원에 원서를 냈다.

☺ 대학원에서의 삶

지역교육협력학과에서의 공부는 지금껏 했던 교과 공부보다 더 흥미로웠다.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공동체가 잘 이뤄지고 있는 사례를 접할 때면 내가 꿈꾸고 상상했던 교육이 더 한 발짝 가까이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학원 수업에 참여하며 당장 학교에서 해볼 만한 일이 떠오르면 마음이 동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가기 위해 내가 교사로서 어떤 기여를 하면 좋을지 궁리하다 보면, 학교 안에 갇혀 현실과 멀어져가는 교사로 남게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안도감마저 들었다. 때로는 지역과 학교의 협력을 도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 해도, 지역 환경과 정주 여건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냐는 자조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했다. 그럴 때면 선생님들과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며 서로 격려하며 힘을 얻었다. 혼자가 아니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부하고 격려하는 경험이 값지게 느껴졌다.

공부를 하다 보면 감정이 널뛰듯 즐거웠다가, 고통스러웠다가, 행복했다가, 지쳤다가를 반복했다. 수업이나 워크숍, 회의와 같이 고정된 일정을 제외하고는, 나의 시간을 온전히 내 스스로 계획해서 쓸 수 있음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는 걸 너무 오랜만에 느꼈다. 십 년간 종이 땡! 하면 교실에 쫄쫄 들어갔다가 땡! 하면 서둘러 나오는 생활을 하면서 느껴본 적 없는 자유로움이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저 좋았다. 선생님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이것은 진리였다.

"(무슨 이유로든) 평일 오후에 학교 밖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하지만 공부와 연구는 고통스럽기도 했다. 생전 처음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의 목적을 정해서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은 쉬이 적응이 안 되었다. 대학 졸업 이후로 논문은 들여다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수업 하나 듣기 위해 수많은 논문을 찾아보고 이해하는 과정은 너무도 벅차고 힘들었다. '내가 이렇게 힘들려고 학교를 박차고 대학원을 왔나?'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들기도 했다. 다음 날 수업 걱정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날도 있었으니.

☺ 1년 파견이 끝나고

짧은 파견이 끝난 지금, 학교로 돌아와 근무와 대학원을 병행하며 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보니 지난 1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파견은 내게 재충전이고, 전환이고, 확장이었다. 국어 교사로 살아왔던 내 삶을 정리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었고, 무엇이든 시작하기에 아무것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학교 안에만 머물렀던 내 시야를 학교 바깥으로 더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입직 10주년에 걸맞은, 아니 과분한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내 일상에서 1년간 '학교'가 사라진 것이 너무 낯설어서, 무언가를 새로 시도하는 데 앞서 '이래도 되나, 내가, 지금?'이라는 생각에 주저하는 시간이 많았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왜 주저했을까 싶은 순간들만 떠올랐다. 다시 파견 시작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주저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앞으로도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즐기는 것이든 공부를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저질렀다가 많은 것을 얻은 파견 경험을 떠올리며. 뭐든지 시작만 하면 주저앉아 있게 되진 않으니 말이다.

☺ 논문, 졸업 … 새로운 시작

파견 기간이 끝났다. 새로운 학교에 발령 받아 적응하면서 대학원 수업을 듣고,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끝끝내 논문을 완성하는 건 사실 정-말 쉽지 않았다. 소중한 '쉼'과 '공부'의 시간이었던 1년이면 충분했다고, 졸업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열두 번은 들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다시 책상 앞에 끌어다 앉힌 건 함께 졸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동기들이었다. 강원도 이곳저곳에 멀리 떨어져 살고, 각자의 사정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에서도 채팅방에서는 자주 서로를 다독였다. 힘들어 하는 구석이 보이면 같이 힘들어 해 주고, 도와줘야 할 부분이 보이면 너나없이 먼저 나서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끌어주는 동지였다. 졸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 앞에서는 사뭇 비장하기도 하여 전우 같았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석사 과정 2년차의 겨울을 보내며, 동기들이 끌어주는 힘으로 겨우겨우 쓴 논문이 RISS에 등재되었다. 이왕 글을 쓰는 핑계로 조회해 본 '내 논문'은 현재(2023.11.) '상세조회 39, 다운로드 46, 내보내기 21'의 수치를 내보이고 있다. 많이 부족한 논문을 누군가가 열어보았을 거라 생각하니 낯이 뜨거워지는 것 같다. '내 논문'이라는 단어의 조합은 여전히 생경하고, 어딘가에 내놓기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든다. 당연히 학술적으로 많이 부족하기도 하다.

하지만… '내 논문'이 내게는 모처럼 가지게 된 '높은 목표'였고, 나를 시도 때도 없이 들들 볶는 '무거운 과제'였지만, 결국 이루어냈기에 '만족스러운 결과'임은 틀림없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기도 하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목표로 삼고 어떻게든 끌고 나가는 힘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 덕분에 '이제는 무얼 시작해서 이뤄볼까'하는 고민을 하는 중이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흔해 빠진 어구가 이제는 내 마음만 같다니 희한할 일이다. 자, 그럼 이제 무얼 해 볼까?

편집위원 기고

학교에서 교육뮤지컬 한 번 해보기

박찬수(지역교육협력학과 박사과정/샘마루초등학교 교사)

처음 뮤지컬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2004년 처음 교편을 잡고 학예회에서 연극·뮤지컬을선보인 경험이 발단이 됐다. 이후로 발령받는 학교에선 꾸준히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작한 활동이지만 연습과 준비과정이 힘들더라도 뮤지컬 무대에 한번 서본 아이들이 이후 스스로 꿈을 찾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걸 보고는 아예 동아리를 만들기로 했다. 소심한 성격의 학생, 뇌병변 증세가 있던 학생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대사를 외치는 모습을 볼 땐 가슴이 벅차오른다. 뮤지컬 동아리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름의 '엄격한' 오디션을 거친다. 자기소개, 읽기, 노래 부르기가 평가 항목이다. 오디션에서 보고 싶은 건 실력이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을 때 가져야 하는 '책임감·의지·성실성'이다.물론 지원자는 다 받아준다. 아이들 입자에서 뮤지컬부 활동은 쉽지 않은 활동이다. 'We are the world'와 같은 영어 노래의 가사를 통째로 외워야 하고, 세세한 대사도 암기하려면 주말을 반납하고 연습할 때도 있다. 오디션을 통과한 학생 중에는 고된 일정 때문에 힘겨워하며 마음이 흔들리는 학생도 있다. 하지만 뮤지컬을 완성했을 때 성취감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

교사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주도하는 뮤지컬을 추구한다. 아이들이 대본, 대사를 직접 만들고 노래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잠재성이 발휘된다고 믿고 있다. 교사는 기술적인 부분만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뮤지컬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질이 높다. 물론 학생들이 논의해 만든 대본에 노력과 고민이 부족해 보이면 '뭐가 부족한지 보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다시 고민해보라'고 말한다. 그 결과물에 노력한 흔적이 보이면 내가 완성도를 높여 준다.

학교 현장에서 '뮤지컬동아리'는 만남과 교류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뮤지컬 교육을 통해 아이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좋다. 아이들의 동기부여와 책임감과 몰입을 지켜볼 수 있는 그리고 결과물에서 공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교육 현장이다.

문화예술교육이 갖는 소통의 능력과 협업의 기능이 여기 있다. 교류의 눈으로 작품을 만들며 완성도보다는 '할 수 있을 만큼만' 이라는 여유로 빈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아이들이 스스로 채우도록 한다. 관계를 망쳐 서로 상처를 받는 것 보다는 부족한 듯하지만, 내가 이루어내고 우리가 협업해서 공연이라는 한 공간과 시간에 존재한 현상을 만끽하는 관계의 즐거움에 더 높은 가치를 갖는다.

편집위원 기고

공연을 위한 작업은 성실한 협업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서로 돕는 것이다. 경쟁도 아니고 최고 속도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도 아니다. 삶의 모습이다. 이 작업에서 민주적 의사소통, 문제해결력, 공동체의식, 역할분담, 책임감 등의 성장을 본다고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커졌다. 아이들을 믿어 줄수록 스스로 자신의 일을 찾고, 성실하게 마음을 내놓았으며 놀랄 만큼 열심히 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부족하니 더 주어야 한다고만 생각 했을까. 주기에만 급급한 덕에 오히려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교육뮤지컬 활동을 되돌아보면 내 스스로가 음악, 공연에 관심이 있어 뮤지컬 동아리를 시작했지만, 사실 나는 아이들이 알아서 놀고 판을 짜는 '공터'를 돌려준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이 큰 재능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무대이자 공터를 되찾아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다. 그곳이야말로 아이들이 인생에 대해 배우는 '또 다른 교실' 아닐까 생각한다.

문화예술교육은 답이 없어서 좋다. 교육은? 교육도 답이 없어야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답이 없어서 좋기에 우리는 함께 한다. 답이 없기에 교류한다. 여러 답이 있어도 좋고 아직 답이 없어도 좋다. 우리는 함께 간다. 정주하지 않고 늘 새롭게 자신의 앎을 가꾸어 나간다.

교실에서 뮤지컬을 적용하기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

교육 뮤지컬 기획 단계 체크 리스트

- ☑ 공연을 전제로 하는가?
- ☑ 콘텐츠를 창작할 것인가?
- ☑ 작품 창작, 연습, 공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 ☑ 지도 교사(팀)가 담당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 공연 규모(학생 구성)는 어떻게 할 것인가?
- ☑ 창작과 연습, 공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교육적인가?

① 공연을 전제로 하는가?

위의 물음은 지도 계획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질문이다. 공연을 전제로 하는 연습 과정과 그렇지 않는 과정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공연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에는 놀이나 친화, 창의성과 도전 정신 등의 단어에 어울리는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하지만 공연을 전제로 하는 과정은 창작과 연습, 발성

과 움직임, 홍보와 공연 등의 키워드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에 대한 구성원의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 공연하기로 했다가 쉽게 취소하거나, 공연을 전제로 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이유로 공연 일정을 예상치 못하게 잡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자칫 교육 뮤지컬 공동체를 와해하거나 교육 행위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동이다. 공연을 전제로 하든, 전제로 하지 않든 교육 뮤지컬의 과정은 교육적이어야 하고, 교육적일 수 있다. 공연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들과 함께 드라마 만들기 활동, 다양한 교육 놀이 활동, 나아가 뮤지컬 넘버 창작 활동을 하며 놀이와 참여, 자발성 위주의 수업을 마음껏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이다. 공연을 전제로 할 때에는 공연 준비 과정에서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약속을 지키며, 구성원들 간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반성하며 사회적 협상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치기 때문에 교육적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연습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나 반복되는 연습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그 과정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공연은 공연 전 3일 안에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연 예술은 공연 전과 후가 다른 법이다. 공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구성원들의 성장이 공연을 통해, 공연 이후의 활동들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때문에 공연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공연 전까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② 콘텐츠를 창작할 것인가?

공연 콘텐츠를 직접 창작할 것인지, 기존의 콘텐츠를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지도 과정이 크게 달라진다. 공연 콘텐츠를 직접 창작할 경우 지도 과정에 '창작'의 과정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창작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창작의 범위와 단계를 고민하는 일도 필요하다.

희곡을 새롭게 창작할 것인지 기존의 작품을 각색할 것인지, 음악을 직접 작곡할 것인지 기존의 가요나 뮤지컬 넘버를 활용할 것인지, 기존의 곡을 활용한다면 개사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따라 세부적인 지도 계획이 달라진다. 또한 기존의 작품을 활용할 경우 저작물 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③ 작품 창작, 연습, 공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예산 문제는 다른 문제에 비해 가장 명확하고 깔끔하다. 먼저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은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예산을 앞으로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합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구성원간의 의미 있는 토론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결정한다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하면 된다.

공연장을 섭외할 수 없다면 내부 시설이나 교실을 이용하자. 음향이나 조명 업체를 섭외할 수 없다면 공연장 내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용할 인력을 섭외할 수 있다. 무대 배경막 등의 대도구를 구할 수 없다면 프로젝터나 공연장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막을 이용해 연출할 수 있다. 소품이나 의상이 부족할 경우 공연 내용을 조정하거나 수업 중에 제작할 수도 있다. 미술이나 영상 등의 제작 관련 강좌와 연계해 함께 한 편의 작품을 제작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처럼 예산은 어찌 보면 의지의 문제이고, 공연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이며, 구성원간 합의 정도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담당자나 지도 교사는 주변의 여건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인식한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택하면 된다. 간혹 이러한 선택의 과정에 지도 교사나 담당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일을 진행해야 할 때도 있다.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는데 예산이 필요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지도 교사나 담당자, 창작자나 공연자에게 매우 부담되는 일이다. 따라서 공연의 내용과 예산 편성, 공연 기획 및 실행에 대한 권한을 내부에서 직접 실천할 구성원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④ 지도 교사(팀)가 담당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교육 뮤지컬에서 지도 교사 개인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교육에서 선생님이 힘을 빼고 아이들의 말과 행동에 집중했을 때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멋진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외부의 사람들과 팀을 구성할 것도 없이 학생들이 직접 공연 전문 분야의 팀원이 되어 지도 교사와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다.

물론 추가적인 전문가 충원이 가능하다면 더 기쁜 일이 될 것이다. 훌륭한 뮤지컬 연출가는 팀원들을 이해하고 가치를 인정하며 그들이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휘자와 같다. 외부 전문가와 팀을 이루든, 학생들과 팀을 이루든,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지도 교사는 자신과 학생들이 발휘하고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고, 부족함이 보인다면 이를 채울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즐겨야 할 것이다.

⑤ 공연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공연을 전제로 한다면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가를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연 규모는 보통 참여하는 배우의 수나 가용한 예산의 범위로 결정하기도 하고 공연장의 크기로 표현하기도 한다. 공연장은 학교 운동장이나 광장과 같은 열린 무대를 활용할 것인가, 학교 강당이나 시민회관,

전문 공연장 등과 같은 닫힌 무대(프로니시엄 극장, 블랙박스 등)를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교육 뮤지컬에서 이러한 공연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참여하는 학생의 수이다. 오디션 과정에서 이미 배역의 수를 결정해 참여하는 학생 수를 사전에 맞춘 경우도 있지만 학생 선정을 먼저 하고 작품 선택이나 공연 기획을 후에 하는 경우도 많다.

간혹 학생 수나 예산에 어울리지 않는 공연장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10명 남짓의 학생이 대극장 규모의 공연장에서 공연해야 하거나, 30명 이상의 학생이 소~중 극장에서 공연하는 일은 쉽지 않다. 또한 넓은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무대 배경이나 소품, 의상 없이 대극장을 선택하는 것도 무모하다. 따라서 학생 선발 단계 이전에 미리 가능한 공연 규모를 가늠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⑥ 창작과 연습, 공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교육적인가?

이 물음은 교육 뮤지컬을 시작하기 전 실행하는 모든 과정, 공연과 그 이후의 과정에까지 항상 스스로 자문하고 참여하는 구성원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다. 교육 뮤지컬은 뮤지컬이라는 방법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유도하는 하나의 교육 활동이라는 것을.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 개인의 만족이 아닌 '함께 즐기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상업적인 뮤지컬과 달리 교육뮤지컬에서는 관객에게 보이는 공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무대에 올라 간 순간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뮤지컬을 제작하는 것을 권한다.

재학생 기고

지역교육협력학과 대학원생으로 1년차를 마치며… …

이은철(지역교육협력학과 석사과정/원주교육문화관 교육행정 6급)

1. 지역교육협력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연구 계획은?

영월교육지원청에서 같이 근무했던 지역교육협력학과 1기 오흥일 계장님이 2021년 지역교육협력학과에 다니실 때 본인이 근무하는 원주교육문화관에 책을 빌리러 가끔 왔습니다. 남들 힘들게 일하는 낮 시간에 편안한 복장으로 「연구방법론」이란 책을 손에 들고, 지역교육협력과를 자랑하던 계장님의 모습에서 일상에 찌든 나의 영혼이 가야할 곳은 이 곳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호기롭게 지원했지만 보기 좋게 떨어지고, 1년 동안 와신상담을 거쳐 경쟁자들을 뒤로하고 올 해 간신히 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지원서에는 거창하게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을 정비하고 발전시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는 현 시점에서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묶는 협력거버넌스 모형을 구축해 만들어 보겠다고 했지만, 유형의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차기를 위해 접어 두기로 하고, 지금은 이전의 업무 경험을 살려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가 되어 공유재산이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과 공유되지 않도록 재산권 보호와 권리 보존을 위한 방법에 대해 서보(徐步)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2. 지역교육협력학과 1년차 과정을 마치면서

애가 셋이다 보니 아침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밀린 집안일이 산더미가 되고, 부모님께서 낳으신 자식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시간이 조금 남는다는 이유로 다른 자식들은 다 뒤로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손발이 되어 호출에 매번 출동하는 내 모습 속에서... 이전에 근무했을 때는 낮에만 열심히 일하면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었는데, 지금은 밤낮 구분없이 과제와 연구 문제들로 고민하는 내 모습 속에서 가끔씩 현타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겨 고맙고, 부모님께 그동안 못했던 아들 노릇을 조금이라도 했던 것과 남들과 다른 시간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 논문이 나오기까지 힘든 여정이 남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들을 애써 가르치셨던 교수님들의 노고를 알기에 꼭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경주하겠습니다.

3. 지역교육협력학과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학교 현장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서로 어렵게만 느꼈던 구성원들이 지역교육협력과 대학원 동기, 선후배로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인연 같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닌, 지역교육협력과 강원도 교육 현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돌이켜볼 때, 물리적 한계로 인해 서로 다가가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겨울 방학 동안 기회가 된다면, 부담스러운 워크숍 같은 것 말고 편하게 MT정도로 기획해서 모든 인원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육협력학과 소식

지금 지역교육협력학과에서는

#행사 #지역과협력하는 #교육연구소

교육연구소 GLOKAL Festival 참여

일 시 2023. 11. 29.(수) 10:00 ~ 17:30

장 소 강원대학교 미래도서관 1층 및 지하 1층 정강홀

활동내용 지역교육협력학과 홍보 및 교육연구소 연구 성과 공유

홍보대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지역교육협력학과 소식

지금 지역교육협력학과에서는

#행사 #지역과협력하는 #교육연구소

2023 대학도시 춘천 포럼

일시 2023. 12. 5.(화) 15:00~17:40

장소 강원대학교 미래도서관 정강홀

주제 지역과 대학의 공유·협업

일정	프로그램	연사
▸ 1부		
15:00~16:30	개회사	김현영 강원대학교총장
	축사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최양희 한림대학교총장
	영상시청	대학협력협의회 홍보영상
	정책연구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옥지호 강원대학교 교수
		김도희 한림대학교 교수
		임대은 강원대학교 교수
		박두재 한림대학교 교수
▸ 2부		
16:35~17:35	정책연구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정성훈 강원대학교 교수
		이동영 한림대학교 교수
		홍은미 강원대학교 교수
		이정민 한림대학교 교수

KNU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교육연구소

지역교육협력학과 소식

지금 지역교육협력학과에서는

#행사 #지역과협력하는 #교육연구소

2023학년도 하반기 지역교육협력학과 석사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심사

일시 2023. 12. 6.(수) 16:00 ~ 19:00

장소 강원대학교 교육4호관 108호

대상 석사학위논문 6명, 연구보고서 6명

2023 하반기 지역교육협력학과 전공 집중캠프

일시 2023. 12. 12.(화) 15:00 ~ 2023. 12. 13.(수) 13:30

장소 경기도 가평군 어비계곡마을 스위스밸리펜션

대상 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 5명, 지역교육협력학과 대학원생 22명

KNU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교육연구소